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

박 균 열 (육군 제3사관학교)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Ⅲ. 남북한 군대문화와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
Ⅳ. 요약 및 결론

Ⅰ. 문제의 제기

분단국의 군사통합은 바로 분단 당사국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공감대의 회복, 확산, 창출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군사통합은 사회통합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통합 문제는 분단의 원인 및 고착화와 관련하여 군대가 가지는 부정적 상징성 때문에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도 상당한 어려움이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統一 韓國의 軍 統合과 軍隊文化,"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2)을 위해 1999년 7월 중에 수집한 설문자료 중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설문 대상은 총 854명으로서 남한의 통일 예비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대학생(434명), 사관생도(258명), 장교후보생(57명), 훈련병(105명)들이다.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군대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유형의 군사력의 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기존의 남북한 군사통합 논의는 주로 외형적인 측면-무기체계, 통신시설, 교리 및 전술체계, 군정 및 군령체계, 통합이후 병력의 감축에 따른 예산소요, 과잉방산업체의 민수화, 잉여군사시설의 처리,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투자된 위험시설 처리 등의 문제점들-에 주된 관심이 모아졌다.

반면에 각각의 체제 속에서 그 군대가 차지하는 고유한 위상의 정립과 같은 내적인 통일(innere Einheit)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1)]

독일 통일의 경우 통일 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내적 통합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이전부터 쌍방의 합의하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내적 통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내적 통합의 문제가 외적 통합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이러한 내적 통합의 문제는 독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군사통합 환경은 독일보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우선 서독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 있었다. 즉 서독의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지원과 사랑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

---

1) 내적 통일에 대해서는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편,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연구소, 1994: 326-344; Kaase, Max, "Innere Einheit,"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hrsg., von W. Weidenfeld u. K.-R. Kort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372, 김학성, "독일통일이후 '내적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과 민간통일 운동의 진로-통일문제연구 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1999: 509-544 재인용; Genosko, Joachim, "독일의 내적 통일에 대한 중간결산," 민족통일과 사회통합-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대한상공회의소, 1999.10.8: 3-27; 손기웅, "통일 한국의 군 통합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 6권 1호, 1997: 289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체로 군사통합이 가지는 범위의 한정으로 인해 이하 논의에 있어서 내적 통일은 내적 통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던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2] 또한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다.[3] 이와 같이 통일 이전의 동서독은 내적 통합의 문제가 현재의 남북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 남북한의 군사통합 논의가 독일의 통합 방식으로 전개된다할지라도 남북한의 통일 수준에 걸맞는 내적 군사통합의 조건이 적어도 통일이전에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곧 완전한 군사통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 한국군의 완전군사통합을 위해 현재의 남북한 군대문화가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또한 기존의 문화적 접근법(cultural approach)이 취하고 있는 『이질성 극복·동질성 제고』라고 하는 논리구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1. 이론적 배경

남북한의 군사통합 문제는 세계의 어느 다른 분단국의 상황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

---

2) Schoenbohm, Joerg,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두 개의 군과 하나의 조국, 육군본부, 1994: 88: 제복입은 시민은 민주 시민사회에 대한 군인의 위상을 정의한 것으로, 군인은 국민 속의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임무수행을 위한 특수제한 사항 외에는 전적으로 일반시민의 그것과 동일함을 말한다.

3) 통독 당시 서독의 경우 신교가 48%, 구교가 43%의 분포율을 보였고, 동독은 신교가 26%, 구교가 4%의 분포를 보였다(한국국방연구원, 미래환경대비 정신교육방향 연구(미간행), 1995. 9. 19: 93). 또한 통독 당시 동독의 국방장관인 에펠만(Rainer Eppelmann)이 목사출신이었던 점은 동독에서의 종교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정재호, "독일 군사통합의 시사점," 육군대학, 『군사평론』 323호, 1996: 123;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 방안, 팔복원, 1996: 146).

구도 매우 복합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이러한 당위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흡족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대체로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는 외형적·제도적인 선결과제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4] 또한 분단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도출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5]

한편 거시적인 통일전략 및 국방정책 속에서 군사통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 연구도 있었지만,[6]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제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의 외형적인 부문과 내면적인 부문을 동시에 강조하고 군사통합을 논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7]

윤정원은 선행 군사통합론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즉 ①지휘

---

4) 장홍기 외, "남북한 군사통합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4; 이상철·지대남, 남·북한 군통합의 법적 문제, 대청마루, 1995; 정병호, "통일 한국의 군사구조,"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통일 한국의 군사체계-국평연 연구자료집 95-11, 1995; 김철환, "남북한 무기체계와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68-90; 서춘식, "남북한 군사교육훈련체계와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111-126.; 이민룡, "남북한 군사전략과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8-21; 이춘근, "남북한 군사력과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22-37; 장문석, "남북한 군 구조와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38-55; 정영태, "남북한 방위산업과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56-67; 정원영, "남북한 동원체제와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127-148; 최광표, "남북한 병무인사제도와 통일 한국군," 한국군사연구원, 『한국군사』제 5호, 1997.7: 91-110; 박주현 외, "남북한 군사통합 비용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 45호, 1999년 여름호; 류재갑,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 통일 후 한반도의 사회 통합 방안(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 1999.4.30: 45-60 등

5) 정재호, "독일 군사통합의 시사점,"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국방부, 1995; 정재호, op. cit., 1996; 하정열, op. cit., 1996; 황진환, "분단국 통일과 군사통합-정향과 안보정책 과제," 『합참』, 합동참모본부, 1997; 손기웅,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등.

6) 차영구, "공존 및 통일시대를 지향한 국방정책-정책검토시리즈 91-1," 한국국방연구원, 1991; 정용길, "남북한 통일 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정치·경제·사회·군사분야," 전략논총 제 6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7) 손기웅, op. cit., 1997; 이창욱, 남북한 군사통합과 통일 국군의 역할, 세종연구소, 1998; 윤정원, "한반도 군사통합방안 논의," 이철희 편저, 21세기형 국방·군사 정책의 모색, 화랑대연구소, 1998: 117-160.

구조의 특징, ②군사통합에 의한 군사력 변화, ③군사통합의 평등성, ④군사통합의 속도, 그리고 ⑤군사통합의 성패 등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반도의 군사통합 방안에 적실성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과정중심적(process-oriented) 유형과 이상주의적(idealistic) 유형으로 나누어, 여기서 다시 계획된 집행과 적응적 집행의 변수를 두어 네 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였다.[8]

그의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군사통합에 대한 분석적 시도에 있어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맞는 군사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군사통합의 유형 분류는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우선 방법면에서 볼 때, 의사소통이 쌍방의 군대간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방형 군사통합과 쌍방형 군사통합이 있고, 통합의 요소면에서 군대자산을 기준으로 외적인 군사통합과 내적 군사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통합은 그 관계면에 있어서 군 내부의 통합뿐만 아니라 군대의 상징과 그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충원 과정 속에서 사회통합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통일 한국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9]

첫째, 내부적 측면으로 남북한 출신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갈등의 발생을 미연에 억제하여 그들간의 이질감 극복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외부적 측면으로 통일 한국군이 대국민, 남북한 주민에 대하여 바람직한 군의 역할을 수행해 줌으로서 통일 후 사회의 통합과정에 기여한다.

류재갑은 군대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 두 나라의 군 구성원을 하나의 군대로 통합하는 작업으로서 그 요점은 두 군대간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군을 만드는 것으로서, 군사분야의 제반기능과 조직체를 하나의 공동기능·조직체로 통합시키는 것이며 군사활동을 일원화시키는 조직적 결합이라고 말했는데,[10] 이는 일견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8) 윤정원, ibid., pp. 117-160.
9) 손기웅, op. cit., 1997: 285.

는 군사통합을 정치적 통일을 전제로 해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군사통합을 정치적 논리에 맡기고 있다. 또한 통일이전의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여, 결국 군의 통합은 통일이후의 논의이고, 그것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해야만 된다는 기존의 군사통합 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사통합이 사회통합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군사통합이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군사통합도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그런데 군대는 사회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그 조직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화적 정체성은 객관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일반사회와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이어(E. Kier)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프랑스 군대의 전략수립과정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관계 또는 맥락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relation or context)'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내부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은 일반사회의 문화적 맥락(context of culture)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11]

또한 카이어는 군대문화는 단순한 군인정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물질적·정신적, 외형적·내면적인 모든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경제·군사 등의 제반 분야의 통합에서 문화적인 접근전략을 주장한다.[12]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군사통합 및 군대문화에 대한 기존의 정치적·군사전략적 접근 중심에서 벗어나서, 카이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적 맥락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0) 류재갑, op. cit., pp. 45-60.

11) Kier, Elizabeth, "Culture and Military Doctrine: France Between the Wars," International Security 19, no. 4, Spring 1995: 65-93; Kier, "Culture and French Military Doctrine Before World War II,"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186-215.

12) E. Kier, ibid., 1996: 203.

2. 연구설계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통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상황, 공간적으로는 군대라고 하는 상황, 그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당장 충원될 예비자원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원될 자원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인적 고려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한의 현재 일반대학생과 군의 예비 장병들(사관생도, 장교후보생, 훈련병)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공별(문·이과), 성별로 구분하여 제한표본추출에 의한 유층군집(流層群集)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대상은 일반과 군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일반대학생은 각 도별 1개 학교씩 선정하였고, 군대의 경우 계층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일반대학생은 각 대학의 특정학과에 의뢰하여, 문·이과의 비율, 남녀 학생의 성비, 학년의 비율 등을 균등하게 하도록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군대의 경우 특히 사관생도는 학년별, 문·이과별로 균등한 비율이 되도록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사관후보생 및 훈련병들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만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의 종료에 임박해서 그들의 자율의지를 최대한 표출할 수 있도록 시기를 선정하였다. 사관후보생(남·여)은 총 교육기간의 3분의 2선에서, 훈련병의 경우 5분의 4선에서 실시하였다.

질문서는 해당 기관의 담당관 및 지인을 통해 1,247명에게 발송되었는데, 회수된 질문서는 총 977매였다. 이 중에서 분석이 곤란한 일부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통계에 활용한 대상자는 일반대학생 434명, 사관생도 258명, 장교후보생 57명, 그리고 훈련병 105명으로서 총 854명이다.

질문서의 발송 및 회수 현황은 〔부록 Ⅱ〕에 명기한 바와 같다.

2) 척도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모든 기술과 탐구, 또한 모든 행동과 추구는 어떤 선을 목표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모든 선에 공통된 이데아란 있을 수 없으며, 선은 존재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들어맞는 어떤 단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13] 이는 이데아 또는 선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적어도 남북한 당사국의 당위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선(善)'이다.

통일 담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분명히 통일을 위해 보탬이 되는 대안이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의 확보는 현재적 남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개별적 평가단계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 통일 군대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현재적 문화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없는 현재가 없듯이 현재없는 미래도 없다. 남북한의 과거 및 현재의 군대문화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모두 미래의 통일 한국의 군대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작용인(作用因)이 된다.

남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14] 이렇게 하여 군대문화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설정한 20개는 다음과 같다. 즉 ①개인주의, ②권위주의, ③단기성과주의, ④명예주의, ⑤무사안일주의, ⑥물질만능주의, ⑦보수주의, ⑧실적주의, ⑨연고주의, ⑩완전무결주의, ⑪진취성, ⑫집단책임성, ⑬출세지향주의, ⑭특권의식, ⑮합리주의, ⑯향락주의, ⑰형식주의, ⑱획일성, ⑲효율성, 그리고 ⑳희생·

---

13)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31-39.

14) 여숙동, "한국 육사생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원재홍 외, "한국 군의 이미지 조사," 화랑대연구소, 1993; 이강효, "공사생도의 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동훈, "한국 군대문화 연구," 『한국사회학』제 29집, 1995 봄호;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6; Hofstede, G. H., Scoring Guide for Values Survey Module Arnhem: Iric, 1982; Soeters, Joseph L., "Value Orientations in Military Academies: A Thirteen Country Study," Armed Forces & Society, Vol.24, N0.1, Fall 1997 등.

봉사정신이다.

구성 변수들의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각각의 내적 일관성 정도(Cronbach α)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군대문화는 0.6744이었으며, 북한의 군대문화는 0.7044로써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 질문서의 내용 및 내적 일관성 정도

주 제	내 용	α
남한의 군대문화	개인주의, 권위주의, 단기성과주의, 명예주의, 무사안일주의, 물질만능주의, 보수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완전무결주의, 진취성, 집단책임성, 출세지향주의, 특권의식, 합리주의, 향락주의, 형식주의, 획일성, 효율성, 희생·봉사정신	.6744
북한의 군대문화		.7044

이렇게 하여 작성한 질문서는 〔부록 1〕에 명기한 바와 같다. 이들 항목들은 리커트(Likert-type)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분석방법과 통계적 절차

자료의 분석은 SPSS-WIN 8.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주요 통계치는 백분율(%)과 평균값(M)이며, T & F-test와 ANOVA 등의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평균값은 "매우 강함"은 100점으로, "대체로 강함"은 75점으로, "보통"은 50점으로, "별로 강하지 않음"은 25점으로, "전혀 강하지 않음"은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4) 기초통계 자료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부록 Ⅲ〕과 같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 결과는 〔부록 Ⅳ〕와 같다.

Ⅲ. 남북한 군대문화와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

1.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 비교

남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비교는 통일군대의 문화를 형성해나가는데 있어서 그 주체 중의 하나인 군인 및 군대의 상호 특징의 차이점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위에서 남북한 군대문화의 20개의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그 인식을 비교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대문화를 20개의 척도에 의해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한 군대문화의 인식 비교

N=854

구 분	남한 군대	북한 군대	T
전체 평균	64.66	59.92	
출세지향주의	76.23 ①	66.15 ⑩	9.22**
명예주의	75.99 ②	69.70 ⑦	-6.14**
권위주의	74.88 ③	82.50 ①	-7.96**
실적주의	73.48 ④	71.03 ⑥	-2.40*
특권의식	72.37 ⑤	79.00 ③	-6.28**
단기성과주의	71.94 ⑥	67.80 ⑨	-3.98**
형식주의	70.95 ⑦	65.30 ⑪	5.46**
연고주의	70.07 ⑧	58.52 ⑫	-10.32**
획일성	67.27 ⑨	78.07 ④	-10.77**
무사안일주의	66.51 ⑩	46.47 ⑭	-20.07**
보수주의	65.98 ⑪	79.29 ②	12.78**
물질만능주의	65.90 ⑫	42.74 ⑯	-19.96**
집단책임주의	62.30 ⑬	74.77 ⑤	-10.64**
개인주의	59.10 ⑭	33.25 ⑳	23.68**
진취성	56.62 ⑮	53.12 ⑬	3.25**
합리주의	54.14 ⑯	36.55 ⑲	18.28**
향락주의	53.93 ⑰	39.39 ⑱	12.24**
완전무결주의	52.65 ⑱	68.88 ⑧	-16.05**
효율성	51.72 ⑲	42.65 ⑰	8.02**
희생·봉사정신	51.22 ⑳	43.28 ⑮	6.64**

주: 1) *: $p < .05$, **: $p < .001$.

2) 평균값은 "매우 강함"(100점), "대체로 강함"(75점), "보통"(50점), "별로 강하지 않음"(25점), "전혀 강하지 않음"(0점)을 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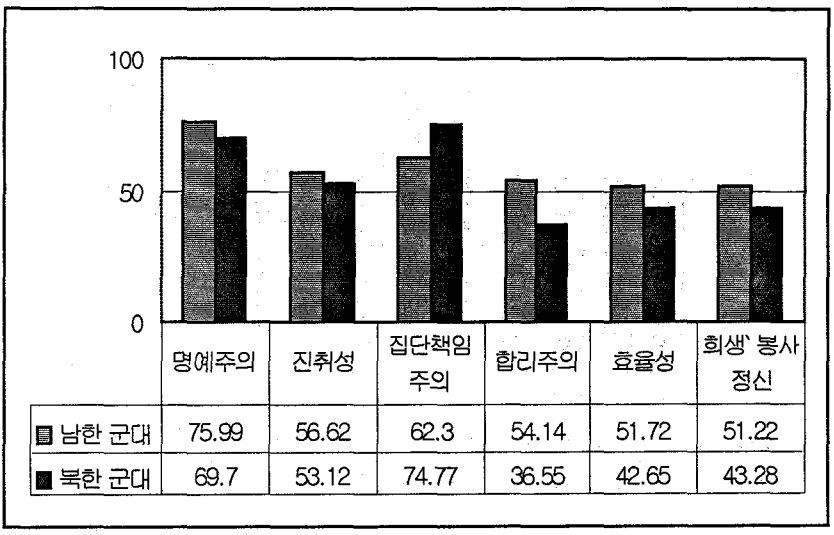
3) 원 안의 숫자는 평균값의 우선 순위를 표시한 것임.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군대문화의 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요소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남북한 군대문화의 긍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 비교

N=854



	명예주의	진취성	집단책임주의	합리주의	효율성	희생`봉사정신
남한 군대	75.99	56.62	62.3	54.14	51.72	51.22
북한 군대	69.7	53.12	74.77	36.55	42.65	4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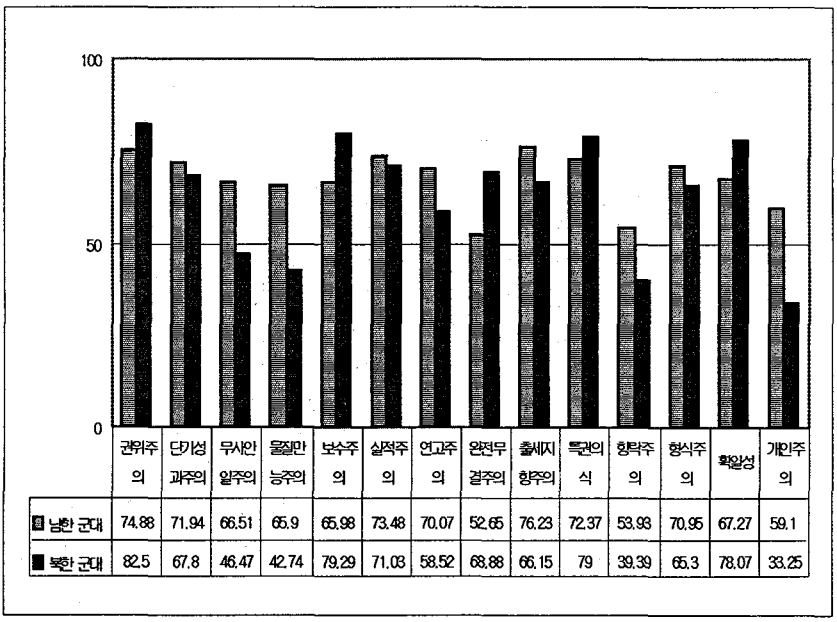
주: 수치는 "매우 강함"(100점), "대체로 강함"(75점), "보통"(50점), "별로 강하지 않음"(25점), "전혀 강하지 않음"(0점)을 가중 평균한 결과임.

긍정적 요소에 있어서 집단책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남한의 군대문화가 북한의 군대문화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군대문화에 있어서 합리주의(36.55), 희생·봉사정신(43.28), 그리고 효율성(42.65) 등은 남한에 비해서도 뒤질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평균값 면에 있어서도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은 바로 통일군대에 있어서 내적인 군사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군대문화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비교이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 남북한 군대문화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 비교

N=854



	권위주의	단기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	물질만능주의	보수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완전무결주의	출세지향주의	특권의식	향락주의	형식주의	확일성	개인주의
남한 군대	74.88	71.94	66.51	65.9	65.98	73.48	70.07	52.65	76.23	72.37	53.93	70.95	67.27	59.1
북한 군대	82.5	67.8	46.47	42.74	79.29	71.03	58.52	68.88	66.15	79	39.39	65.3	78.07	33.25

주: 수치는 "매우 강함"(100점), "대체로 강함"(75점), "보통"(50점), "별로 강하지 않음"(25점), "전혀 강하지 않음"(0점)을 가중 평균한 결과임.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군대문화의 부정적 요소 중에서 남한의 부정적 요소가 북한의 것에 비해 더 좋지 않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출세지향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물질만능주의, 무사안일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향락주의 등이다. 여기서 북한의 물질만능주의(42.74), 개인주의(33.25), 그리고 향락주의(39.39)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점들은 군사통합 과정에 있어서 남한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부정적인 요소로는 권위주의, 특권의식, 단기성과주의, 형식주의, 획일성, 보수주의, 그리고 완전무결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한 군대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히 개선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다. 특히 북한 군대는 개선해야 할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다.

2.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 논의

앞선 논의에서 통일 한국군의 군대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실진단을 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진단의 기조는 기존의 소위 『이질성 극복·동질성 회복』의 틀 속에서 보다 세련된 해석상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부당한지, 아니면 제 3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질성 극복·동질성 제고' 논리의 타당성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간의 조화와 이를 토대로 한 현재적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대문화의 이질성을 찾아내어 이것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화의 변화에 대한 측면을 간과해서 실패로 끝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북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분단사에서 6.25 한국전쟁이 워낙 치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통일 문제 논의에 있어서 언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1990

년대 초에 이루어진 동서독의 갑작스러운 통일은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왜냐하면 동서독의 통일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의 산물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동서독 사이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확보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15)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사회문화적 이질화의 내용과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작업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부 연구의 경우 북한 사회에 대한 남한 사회의 문화적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능한 점도 없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연구가 남한 사회의 문화적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할 경우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16)

특히 이러한 논리는 통일군대문화의 형성에 적용될 때, 일반사회에 비해 군대사회가 가지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은 군사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군사적 대치가 남북한의 분단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顯示的인 예로써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군대문화 형성에 있어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논리는 남북한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위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직접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비교 그 자체는 현실태 분석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2) 『이질성 극복 · 동질성 제고』논리의 부당성

앞선 논의에서 통일한국군의 군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써

15) 백승대, "남북한 사회 · 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전망,"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제19집, 1997: 4.

16) ibid., p. 7.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문화적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틀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두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적 요소(이질성·동질성)와 여러 가지 의미의 함축성으로 인해 흑백논리로 해석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논리가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공상적이면서 극단적인 통일지상주의 또는 미래의 통일한국상 제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주장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통일논의가 과거중심적이고, 문화적 요소중심적이라고 보고, 현재의 남북한 문화 자체가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목표나 원리를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의 전통 중에서 초월적인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통일의 이상으로 삼고자 주장하고 있다. 그 명칭으로는 '한민족 공동체' 등이 있다. 그 명칭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이는 일종의 민족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 이념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두 하위문화를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 '한민족문화'라는 공통의 문화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분단되어 살아 온 역사보다 단일 민족으로서 살아 온 역사가 더 긴 한민족에게 우선하는 민족주의 이념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다.[17]

그런데 이러한 주장도 네덜란드의 철학자 반 퍼슨(van Peursen)이 말한 바와 같이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한 바,[18] 즉 문화의 동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즉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상황이 토대가 되지 않고, 초월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이상향에 그칠 수 있다.

---

17) ibid., p 9.

18) van Peursen, C. A., 강영안 역,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1994: 21, 132.

3) 제 3의 길

앞선 논의에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의 제고라는 단일선적 논리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전자의 입장은 그것이 분단상황이전으로 회귀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는 그 시대와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현실론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집착보다는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미래상을 제시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타당성과 부당성 논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제 3의 길을 없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양비론(兩批論), 양시론(兩是論), 일방우선선택론(一方優先選擇論)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양비론은 타당성과 부당성의 논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고, 양시론은 둘 다 수용하는 것이고, 일방선택론은 어느 한 입장을 중심으로 다른 한 입장을 선택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학자는 양비론의 입장에서 문화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을 그 형태에서 찾는 차원을 너머서 실제로 작용하는 맥락(context) 속에서 비교하는 작업과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19]

본 논문에서는 양시론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두 개 문화사이의 접변(acculturation) 과정은 문화요소들간의 갈등과 수렴도 중요하고, 새로운 문화요소 창조와 그 방향의 제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새롭게 창조해 나갈 통일군대문화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양식이므로, 생존성(via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경험적 요소가 전혀 배제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 논리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 논리의 양시론은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9) 김광억, "문화소통과 문화통합-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발표논문집, 1999: 5-8.

[표 3] 동질성과 이질성 논의의 새로운 접근

구 분		동질성	이질성
긍정적 문화요소	평균이하	상호 약점	일방의 상대적 우월
	평균이상	상호 강점	문화의 다양성 측면, 상호 이익
부정적 문화요소	평균이하	상호 강점	상호 강점
	평균이상	상호 약점	쌍방의 약점

주: ▒표시 부분은 통일군대문화 형성에 있어서 남북한 군대가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일방이 타방의 장점을 수용,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임.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동질성과 이질성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동질성은 무조건 제고해야 하고, 이질성은 무조건 극복해야한다는 단일선적 논리 자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통일한국상과 미래의 통일한국 군대상, 그리고 그 문화상을 제시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20]

Ⅳ. 요약 및 결론

남북한의 통일문화는 현체제의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의 확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명력을 가진 미래문화 창출의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 군대문화의 형성은 이와 같은 통일 한국의 문화 일반에 대한 논의 선상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데, 군대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미묘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논의를 핵심으로 다루었다. 첫째, 남

20) 이러한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제고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앞선 논의에서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 군사통합의 문제가 기존의 정치적 논리에서 문화적 논리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체제내에서의 군대는 여느 나라의 군대보다 아주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남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교차 인식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러한 적대적 과거의 경험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동시에 군대가 갖는 엄정한 上命下服의 조직 특성 등은 남북한의 군사통합이 통일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상황이 아닌 평시의 군 조직의 내적 통합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낙관론은 항상 옳지만은 안다는 점을 잘 보아왔다. 군이 병영내 진중오락 활동을 개선하고 있고, 장교 양성 과정에서 부하들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대지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들은 바로 군대조직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대변해 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완전한 군사통합은 하나의 생명력을 가진 통일한국군의 군대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통일 군대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현재의 남북한 군대문화 중에서 이질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동질적인 것은 최대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분단 이전 시기로 회기만 할 수 있다면, 군사통합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의 슬로건으로써는 명명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있다. 문화는 항상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남북한의 군대문화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의 문화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것의 好不好와 생명력의 高低를 논외로 하더라도, 통일한국군의 군대문화로 수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동질적인 것은 최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남북한 사회에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다. 사실 남북한 군대문화는 그 변화과정에서 좋은 변화를 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여기서 쌍방이 모두 과거의 문화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혀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즉 쌍방이 모두 좋지 못한 쪽으로 변화되었을 때 동질적인 것이라고 해서 제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면에 쌍방이 모두 좋은 변화를 했지만, 그것이 보이는 문화적 행태가 단지 이질적이라고 해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한국군의 군대문화 형성은 이질성 극복·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논리에 지나치게 구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현실의 남북한 군대를 도외시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통일군대상이나 통일군대문화상 등을 설정하고자 해서도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군의 군대문화는 지나친 이상보다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전제하고, 상호간의 군대문화에 대해 편견과 거부감없이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남한의 통일예비세대들이 현재의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남한의 통일예비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록 I]

질 문 서

※ 다음 항목에 있어서 현재의 남북한 군대는 어느 정도 그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남한 군대>						<북한 군대>				
① 매우강함	② 대체로강함	③ 보통	④ 별로강하지않음	⑤ 전혀강하지않음		① 매우강함	② 대체로강함	③ 보통	④ 별로강하지않음	⑤ 전혀강하지않음
					개인주의					
					권위주의					
					단기성과주의					
					명예주의					
					무사안일주의					
					물질만능주의					
					보수주의					
					실적주의					
					연고주의					
					완전무결주의					
					진취성					
					집단책임성					
					출세지향주의					
					특권의식					
					합리주의					
					향락주의					
					형식주의					
					획일성					
					효율성					
					희생·봉사정신					

[부록 II]

질문서 발송 및 회수

구 분	대상 학교		발송	회수
일반 대학	소 계		550	467
	서울대학교		50	50
	인천대학교		50	41
	부산대학교		50	45
	경상대학교		50	54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50	49
	광주교육대학		50	55
	전북대학교		50	50
	공주대학교		50	39
	서원대학교		50	54
	강원대학교		50	46
	제주교육대학		50	39
군 대	소 계		690	510
	사관생도	육군사관학교	100	0
		해군사관학교	100	0
		공군사관학교	100	109
		국군간호사관학교	55	56
		육군 제 3사관학교	150	150
	장교 후보생	육군 제 3사관학교 (학사장교과정)	50	50
		육군여군학교	35	35
	훈련병	육군 훈련소	100	110

주: 질문서의 회수분 중에서 일부 발송한 것보다 많이 회수된 것은 협조자가 예비분까지 포함하여 수거하였기 때문이다. 육군여군학교의 경우 자료가 지연 도착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분석이 곤란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제 통계에 활용한 대상자 수는 854명이다.

[부록 Ⅲ]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배경 변인	N	%	배경 변인	N	%
성별			**사관학교별**		
남자	600	70.3	공군사관학교	106	41.1
여자	254	29.7	국군간호사관학교	52	20.2
			육군 제 3사관학교	100	38.8
출신지역별					
서울-경기	211	24.7	**병역필한 종류별**		
강원	34	4.0	병사(전경/공익근무 포함)	151	97.4
부산-경남	161	18.9	하사관	1	.6
대구-경북	132	15.5	장교	3	1.9
광주-전남	86	10.1			
전북	81	9.5	**성장지별**		
대전-충남	74	8.7	읍-면단위	185	21.7
충북	34	4.0	중소도시	277	32.4
제주	40	4.7	대도시	391	45.8
기타	1	.1	외국	1	.1
종교별			**아버지의 최종학력별**		
기독교	259	30.3	초등학교	119	14.0
천주교	97	11.4	중학교	148	17.4
불교	154	18.0	고등학교	358	42.0
기타종교	13	1.5	2~3년제 대학	20	2.3
무종교	331	38.8	4년제 대학	165	19.4
			대학원	42	4.9
신분별					
일반대학생	434	50.4			
사관생도	258	30.2			
장교후보생	57	6.7			
훈련병	105	12.3			

[부록 Ⅳ]

응답자의 특성변수에 따른 남북한 군대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남북한 군대문화의 20개의 가치에 분석을 위해 우선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요인은 Ein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되었으나, 그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명확히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모호한 점이 있어 요인분석을 통한 방법은 동원하지 않고, 단지 설문대상자들의 배경변인, 즉 성별, 종교별, 신분별, 사관학교별, 병역관계별, 성장지별, 아버지의 학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평균값은 ①출세지향주의(76.15점), ②명예주의(75.91점), ③권위주의(74.94점), ④실적주의(73.47점), ⑤특권의식(72.39점), ⑥단기성과주의(72.13점), ⑦형식주의(71.16점), ⑧연고주의(70.05점), ⑨획일성(67.40점), ⑩무사안일주의(66.60점), ⑪보수주의(66.19점), ⑫물질만능주의(65.85점), ⑬집단책임성(62.40점), ⑭개인주의(59.02점), ⑮진취성(56.53점), ⑯합리주의(53.94점), ⑰향락주의(53.84점), ⑱완전무결주의(52.58점), ⑲효율성(51.59점), 그리고 ⑳희생·봉사정신(51.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보면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남	여	
개인주의	60.08	56.50	4.377*
명예주의	74.71	78.74	7.518**
무사안일주의	65.59	68.97	4.186*
물질만능주의	63.53	71.34	19.241***
연고주의	67.92	75.10	20.463***
집단책임성	64.42	57.57	14.957***
출세지향주의	74.62	79.76	10.367***
특권의식	70.92	75.89	9.185**
향락주의	52.01	58.17	10.074**
효율성	52.88	48.52	5.972*
희생·봉사정신	53.17	46.46	14.937***

주: *: <.05, **: <.01, ***: <.001

<표 2>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종교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무종교	
집단책임성	61.92	64.58	66.99	71.15	59.67	3.232*
특권의식	74.61	68.56	71.75	96.15	71.14	5.617***
향락주의	52.80	50.77	55.72	86.54	53.41	5.909***
효율성	51.74	50.00	55.19	65.38	49.70	2.604*
희생·봉사정신	51.16	45.62	56.01	40.38	50.98	3.759**

주: *: <.05, **: <.01, ***: <.001

<표 3>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신분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일반대학생	사관생도	장교후보생	병사	
개인주의	58.12	62.69	58.33	54.05	4.130**
권위주의	77.55	74.71	74.56	65.00	14.826***
단기성과주의	73.85	73.45	76.32	59.38	17.607***
명예주의	78.86	69.67	78.51	77.64	12.974***
무사안일주의	69.46	66.47	64.47	56.07	10.786***
물질만능주의	70.68	62.26	59.65	57.84	13.379***
보수주의	69.03	66.86	68.42	51.67	17.787***
실적주의	74.02	74.61	78.95	65.38	7.473***
연고주의	73.79	69.57	73.25	54.05	26.590***
완전무결주의	50.92	55.33	57.46	50.00	3.647*
진취성	52.19	59.50	55.70	67.62	18.566***
집단책임성	57.85	65.33	64.47	72.86	14.158***
출세지향주의	78.70	75.19	77.68	66.99	8.868***
특권의식	75.64	70.82	69.30	64.52	8.673***
합리주의	51.33	56.01	48.25	62.86	9.652***
향락주의	59.16	49.61	45.98	46.39	13.374***
형식주의	72.75	72.00	71.49	62.38	7.689***
획일성	66.94	70.91	69.74	59.38	7.384***
효율성	49.60	51.75	42.11	64.66	15.094***
희생 · 봉사정신	46.37	52.62	56.58	64.52	20.125***

주: *: <.05, **: <.01, ***: <.001

<표 4> 남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사관생도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공군사관 생도	간호사관 생도	3사관 생도	
완전무결주의	52.12	52.88	60.00	3.590*
진취성	57.31	55.29	64.00	4.371*
획일성	71.23	77.94	67.00	4.568*

주: *: <.05

한편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평균값은 ①권위주의(82.50점), ②보수주의(79.29점), ③특권의식(79.00점), ④획일성(78.07점), ⑤집단책임주의(74.77점), ⑥실적주의(71.03점), ⑦명예주의(69.70점), ⑧완전무결주의(68.88점), ⑨단기성과주의(67.80점), ⑩출세지향주의(66.15점), ⑪형식주의(65.30점), ⑫연고주의(58.52점), ⑬진취성(53.12점), ⑭무사안일주의(46.47점), ⑮희생·봉사정신(43.28점), ⑯물질만능주의(42.74점), ⑰효율성(42.65점), ⑱향락주의(39.39점), ⑲합리주의(36.55점) 그리고 ⑳개인주의(33.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남	여	
개인주의	35.54	27.26	18.415***
권위주의	81.34	85.63	6.270*
명예주의	66.96	75.89	6.012*
실적주의	68.77	76.58	16.425***
연고주의	56.98	62.06	6.732**
완전무결주의	67.65	72.13	5.221*
진취성	50.75	58.94	16.308***
집단책임성	73.41	77.87	5.295*
합리주의	35.54	38.93	4.295*
향락주의	40.69	36.02	5.501*
획일성	74.62	86.26	44.688***
효율성	41.03	46.26	7.48**
희생·봉사정신	41.04	48.52	13.195***

주: *: <.05, **: <.01, ***: <.001

<표 6>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종교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종교없음	
개인주의	36.39	30.41	34.58	65.38	83.26	3.114*
단기성과주의	69.57	73.20	67.05	44.23	66.16	4.994***
명예주의	68.05	68.81	68.02	48.08	72.66	3.588**
물질만능주의	42.93	49.74	41.23	40.38	40.98	2.400*
보수주의	79.63	85.31	80.68	60.42	77.50	4.386**
실적주의	71.51	76.55	72.39	44.23	69.62	5.033***
진취성	53.59	51.29	58.50	61.54	50.46	2.764*
집단책임성	76.26	72.94	73.20	51.92	75.68	3.145*
특권의식	79.73	80.41	80.23	48.08	78.71	5.834***
형식주의	67.86	65.98	63.96	44.23	64.55	3.153*
획일성	78.67	81.77	77.11	50.00	78.11	5.305***

주: *: <.05, **: <.01, ***: <.001

<표 7>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신분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일반대학생	사관생도	장교후보생	병사	
개인주의	28.69	37.40	36.40	38.81	8.729***
명예주의	74.88	59.59	71.49	71.43	19.003***
물질만능주의	40.82	43.39	37.72	50.71	5.108**
실적주의	71.88	72.18	73.25	63.94	3.074*
연고주의	56.83	62.69	56.14	56.25	3.234*
완전무결주의	70.96	69.09	72.37	58.65	6.650***
진취성	58.35	49.12	45.18	46.19	11.550***
집단책임성	79.39	71.89	78.07	60.71	17.244***
합리주의	39.03	34.69	29.82	34.52	4.634**
향락주의	35.77	42.34	35.71	48.33	8.216***
획일성	81.35	81.69	77.19	56.01	39.142***
효율성	47.12	38.86	39.47	34.62	10.231***
희생·봉사정신	47.93	41.96	36.84	30.71	13.012***

주: *: <.05, **: <.01, ***: <.001

<표 8>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공군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3사관생도	
개인주의	32.78	28.37	47.00	12.461***
명예주의	61.79	66.83	53.50	4.957**
무사안일주의	46.93	39.90	49.50	3.184*
완전무결주의	71.93	74.04	63.50	4.252*
형식주의	70.52	73.56	63.75	3.213*
획일성	82.78	93.27	74.50	14.643***
희생·봉사정신	44.58	48.08	36.00	4.37*

주: *: <.05, **: <.01, ***: <.001

<표 9> 북한의 군대문화에 대한 아버지의 학력별 인식의 차이

구 분	M						F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2-3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졸	
명예주의	64.08	66.89	70.81	67.50	73.79	68.45	2.321*
무사안일주의	51.89	42.18	45.67	48.75	47.42	44.05	2.610*
완전무결주의	63.77	70.75	69.76	53.75	69.70	75.00	2.981*
특권의식	75.00	82.60	79.35	76.25	76.36	86.31	2.618*
합리주의	34.03	34.01	36.87	30.00	37.27	50.60	4.676***
획일성	72.90	77.38	80.45	86.25	7683	77.38	2.456*
효율성	39.41	39.19	41.48	37.50	48.03	54.17	4.426***
희생·봉사정신	39.08	39.36	43.99	48.75	45.30	52.38	2.442*

주: *: <.05, ***: <.001.